

서울의 신도시화 과정과 공간구조의 변화*

이경자** · 홍인옥*** · 최병두****

요약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등의 부문별 특성과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지식 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서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도 타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환경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며, 정보통신산업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여가 활용 방법 및 소비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복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주요어 : 신도시화, 지식기반산업, 경제의 서비스화, 계층구조의 양극화, 다핵구조화, 생태도시

1. 서 론

도시가 출현한 이래로, 도시는 항상 성장과 파괴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표면적인 현상을 통해 확인되었지만, 도시화의 기저를 이루는 과정이나 전체적인 도시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는 수많은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을 비롯해 공간구조나 도시정책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S1521)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강사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

특히 지난 10여년간 선진국의 대도시들의 경험에 의하면, 대도시의 경제는 이른바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 혹은 첨단기술 및 지식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한 구조로 전환을 겪게 되었고, 도시정치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민들은 소득증대와 더불어 포스트모던 생활양식 또는 문화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과거 개발 패러다임으로 인한 심화된 도시의 생태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태적 의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새롭게 등장하는 양상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화 과정은 특히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및 지방화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개별 도시들은 직접 국제자본을 유치하고 세계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도시의 경제 및 공간구조를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도시의 재구조화 과정은 새로운 도시정책 및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도시 통치양식의 변화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및 지방화의 과정에서, 대도시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도시의 경제 및 사회·환경적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신도시화 과정은 물론 세계의 모든 도시들에서 동일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화 과정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면서 이른바 '세계도시'(world city)로 성장해가고 있다.¹⁾ 특히 서울은 탈공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산업 중심의 탈산업

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그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최근의 도시화 과정과 관련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지방정부와 민·관 협력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통치체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생활에서 계층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도시공간구조에도 반영되어, 도시에서 제조업 이탈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고차서비스 기능과 첨단 혹은 소규모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국지적인 집중현상이 중첩적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서울에서는 전체적으로 탈공업화와 재산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역동적인 구조재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내부에서도, 강남지역으로 대표되는 신흥 부유층 지역과 서울역, 영등포 인근의 쪽방이나 서울 외곽의 비닐하우스로 상징되는 빈곤층 지역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의 각 부문별 변화와 이에 따른 공간구조의 재편은 과거의 도시성장과는 그 성격이 다른 이른바 '새로운 도시화'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화'과정은 서구 선진국의 대도시들이 이미 경험한 양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에서는 유사성과 특이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서구 사회의 대도시들이 경험한 현대도시의 변화과정을 모형으로 적용하여 199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경험적 사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최근 서울의 변화과정을 산업(모던)도시에서 탈산업(포스트모던) 도시로의 전환 과정으로 설정하고,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공간,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신도

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도시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서울의 최근 변화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도시발전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현대도시의 변화과정

최근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도시화에 관한 여러 이론과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등장한 신도시주의(new urbanism)는 거대한 대도시 내에서 공동체적 근린지구와 공적 공간 및 보행자 우선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중매체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신도시주의는 1980년대 이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론적 논의에 토대하고 있다(최병두, 2002b). 그러나 이러한 신도시주의는 새로운 도시계획 및 설계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최근 서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 자체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아니라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도시화'과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각 부문별로는 나름대로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들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경제부문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론, 정치부문에서 도시거버넌스이론, 사회문화부문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환경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론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각 부문별 이론들을 재고찰하고 통합하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구동회·박영민 역, 1995; 유환중 외, 1999),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원용하여 서울의

최근 도시화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대도시는 자본과 노동의 집중지로서 생산, 소비, 교환 등 경제활동 전반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최근 들어 범세계적으로 확산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서로 연결시키는 교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대도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새로운 변화 양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도시형태 및 유형의 명백한 변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논의는 대부분 '포스트모던 도시', '후기산업도시' 혹은 '포스트포디스트 도시' 등과 같은 새로운 도시형태의 출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조명래, 1995; 이무웅 외, 1997).

과거 모던사회(산업사회)의 도시는 포드주의에 기반한 도시였다. 포드주의란 좁은 의미에서는 대량생산과 새로운 노동 관리방법, 넓은 의미에서는 독점적 산업구조, 자본과 노동의 집합적 협상, 상대적 고임금에 따른 대량소비,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국가경제정책과 복지국가 노선 등이 함께 결합된 거시적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산업사회의 도시는 이러한 포드주의 축적체제를 근간으로 한 제조업 기반의 생산 중심적 도시였고,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이 중요한 산업경관인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드주의에 기반한 산업사회는 1970년대 들어서서 이윤율의 저하, 차별화된 수요의 등장,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심화, 복지국가 수행에 따른 만성적자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강현수, 2003).

이러한 포드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서구 사회의 대도시들과 일부 새로운 성장도시들은 첨단 기술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른바

포스트포드주의 또는 유연적 축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였던 기업들은 이제 컴퓨터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한 생산라인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다품종 소량생산의 방법으로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기업들은 이제 상호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학습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의 절감이나 집적의 이익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지역의 창조성 증대와 다른 한편으로 불확실성 및 위험성의 감소를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대도시는 주요 경제주체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혁신네트워크의 결절점 또는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지가 되게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 산업사회의 도시발전과 성장의 기제였던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사회구조 형성과정의 기제와 연동되어 작동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소비나 분배는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다. 발전 유인책의 이러한 선택성 때문에 도시의 비물질적이고 소프트웨어적 영역인 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은 상대적으로 저발전 상태로 남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영위되는 삶은 여전히 전통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하거나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점차 성숙되면서, 한편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반화에 따라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편성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개입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집합적 소비재의 공적 제공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 역할의 확대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정부는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을 축소하

고, 시장메커니즘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전환하게 되었다(김재철, 1999; 최병두, 2002a).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시통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다원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도시통치의 기본구조는 시민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간에 협력하는 네트워크 관리체제에 놓여진다. 그러나 도시통치구조 내부에서 권력과 기회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발생할 갈등이나 시장기제 또는 자본논리 우선에 의해 사회적 분배가 편향적으로 결정되는 도시정치의 파행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체제의 개방화와 민주화가 우선 필요하게 되었다(조명래, 1996). 이 같은 새로운 도시관리 상황에서 서구 도시들은 새로운 통치방식을 강구하는데, 그 지배적인 양상으로 산업진흥, 노동공급, 범죄예방, 환경관리, 복지서비스, 하부구조 건설 등 각 분야별로 지방정부가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비정부 조직이나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즉 이른바 거버넌스(協治, governance)체계를 통해 수행해 가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가 도시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고자 하는 전략과 정책목표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을 연동시키는 도시정치적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도시정부의 지배체제가 나름대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²⁾

사회·문화부문에서의 도시화 과정의 변화도 복잡다단하다. 과거 모던 도시가 계층분화를 특징으로 하고 집단의 동질성의 정도가 컸다면, 포스트모던 도시는 고도의 분절화된 생활양식으로 분화되어 있고 사회적 양극화의 정도가 크며 소비패턴에 의하여 집단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 지향적인 포스트모던 도시의 이러한 특징은 전후 포디즘의 활황기 동안 늘어난 물

질적 풍요와 소득증대와 맞물려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는 지위, 정체성, 구별짓기의 중요한 척도이다. 더군다나 최근 소비패턴은 과거와는 달리 배타성, 스타일, 독특함을 강조하고 있다(최병두, 2002a).

이러한 사회문화부문에서의 변화는 물론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즉, 포디즘의 경직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생산에서 회전시간의 가속화는 그에 상응하는 교환과 소비부문의 가속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영역에서 발달한 2가지 특징은 대중시장에서의 패션 동원과 재화의 소비에서 서비스의 소비로의 이동이다. 이러한 자본회전 시간의 가속화는 결과적으로 생산물, 생산기술, 노동과정 등의 경제적 부문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 이데올로기, 가치, 기존관행 등의 즉흥성과 순간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즉흥성의 생산을 위해서는 취향이나 의견의 조작이 수반된다. 여기서 새로운 기호체계와 이미지의 창출이 중요한 측면이 되고, 광고와 미디어 이미지가 자본주의 성장동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광고가 판매되는 상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미지들을 통해 욕망과 기호를 조작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지 그 자체가 상품화되기도 한다.

도시환경의 측면에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에 근거를 두었던 모던 도시는 생산의 도가니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원료와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한 제품의 생산과정과 이들의 소비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들을 대량으로 배출하여 누적시키는 환경문제의 근원지이기도 했다(최병두, 1999). 이러한 산업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단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자원

을 소모하고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자원고갈과 오염문제의 심화로 인하여 결국 더 이상 값싼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문제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시민들의 반공해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산업구조와 생산관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포스트모던 도시의 환경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론, 생태도시론 등의 새로운 도시환경 이론이 등장하고 있고,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는 녹색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생태도시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최병두, 2003).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모던 도시의 환경은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 중심적 환경의 지향과 주로 관련된다. 포스트모던 도시의 생산체제인 유연적 축적체제는 포드주의 축적체제에서 대규모로 소모되었던 소재와 에너지의 엄청난 축약,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공해저감형 생산공정, 탈제조업화에 따른 물질적 소재의 저감,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이동량의 감소 등은 모두 포드주의 축적체제 하에서 자행되었던 자원소모와 환경오염을 상당 정도로 저감시켜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최병두, 1999: 36). 나아가 포스트모던 도시는 과거의 사후적 환경통제정책에서 나아가 환경문제의 발생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전적 방안들을 모색하며, 파괴, 오염된 도시 환경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함으로써, 이른바 생태도시를 추구하게 된다. 서구 사회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각 부문별 변화과정은 도시 공간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도시 경제의 중심을 이루

던 대규모 제조업이 쇠퇴하거나 외부로 분산됨에 따라 대도시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다. 직접 생산과정이 점점 단순화, 표준화되면서 이를 담당하는 노동력이 별다른 숙련이나 훈련을 필요치 않게 됨에 따라, 이 과정은 값싼 노동이 풍부한 지역이나 사회정치적 환경이 유리한 지역을 찾아 대도시에서 이전 분산하게 된다. 이러한 직접생산과정의 분산화는 한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해 생산의 국제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실행기능의 분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분산과는 반대로 영세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의 하청생산을 담당하거나 저소득층의 값싼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이들 영세소기업들은 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극단적인 노동착취를 행하며, 최저임금, 보건 및 안전기준, 과세, 용도지구 등의 정부규제를 무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 경제에서 비공식부문이 확대된다. 제 3세계 국가들의 대도시들의 특징인 이러한 현상은 선진

국 대도시에서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를 선진국 도시 내부의 '제3세계화'라고 일컫기도 한다(조명래, 1995). 대도시에서 영세소기업의 번성은 도시빈민층의 생존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하청망을 통한 대기업으로의 초과착취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이중구조는 도시공간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빈민지역과 부유지역간 새로운 주거지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다른 한편, 20세기에 발달한 근대 도시에서는 동질적인 토지이용과 동질적인 사회집단의 지대가 나타나며, 도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가도 일정하게 하락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시대의 도래로 도시지리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의 도시는 구시대적인 것이며 새로운 도시형태가 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최재현, 1998). 새로운 도시는 형태상 분절적이며 구조에 있어서는 무질서하고 이전 도시들과는 다른 도시화 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형태에는 '성운형'대도시라는 별칭이 붙여지고 있다. 물론 도시화의 포스트모던 형태가 모던 형태를 대체하는 범위와 그 실제적 본질은 도시마

표 1. 분석을 위한 개념틀

구 분	모던도시	포스트모던 도시
경 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공업적 생산에 기반을 둠, 규모의 경제	유연적 생산, 서비스부문에 기반을 둠, 범위의 경제
도시정부	복지정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집합적 소비재의 공적 제공, 경제적 부의 재분배	기업가적 정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서비스 공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협력
사회문화	계층분화, 소득수준에 의한 집단 구분, 집단의 내적 동질성.	양극화, 소비패턴에 의한 집단구분, 분절화된 생활양식.
환 경	자원개발 공급중심 (환경문제 심화), 환경규제 강화, 사후적 통제정책	수요관리 중심, 사전적 환경문제 예방, 도시환경의 생태적 복원 (녹지공간 조성 등)
공간구조	동질적인 기능적 지구제, 단일한 도심 상업업무지역과 도시재개발, 기능적 건축과 대량공급, 전반적으로 계획된 도시공간	무질서한 다결절 구조, 상업업무지구의 다핵적 분화와 재활성화, 질충주의적 건축과 리모델링, 미학적 도시계획과 도시공간 분절

다 다양할 것이다. 즉, 실제로 많은 도시들에서 근대 도시의 성격들이 새로운 포스트모던 도시형태와 어우러져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서술된 모던 도시와 포스트모던 도시간의 전환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표 1이다. 이 표에서 제시된 개념적 틀을 원용하여,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서울의 모던도시에서 포스트모던 도시로의 변화 즉 신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야별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서울 신도시화 과정의 부문별 특성

1) 도시경제

(1) 탈산업화와 서비스경제의 발달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및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이 거대하게 집중되어 있는 도시일 뿐

만 아니라 발전의 단계에서 가장 앞선 도시이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 수도로서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 첨단기술산업과 벤처기업들이 집적해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물질적) 삶의 질을 향유하고 있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세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³⁾ 이러한 점에서 서울은 서구의 대도시들과도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도시로서 서울이 가지는 특성을 보다 차분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산업별 종사자수의 비율을 살펴 볼 수 있다. 서울의 2차 산업 비중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0년 29.8%에 달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0년 19.1%로 낮아졌고,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1960년대 이후 대체로 70% 정도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

표 2.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의 변화추이

(단위 : 만명, %)

구 분	서울				전 국			
	1970	1980	1990	2000	1970	1980	1990	2000
종사자계	162	256	369	466	1,015	1,268	1,575	2,115
1차 산업	2.0	0.9	0.5	0.2	50.8	37.8	20.8	10.5
2차 산업	28.7	32.6	29.8	19.1	15.3	22.8	27.8	20.5
3차 산업	69.3	66.5	69.7	80.7	33.7	39.4	50.9	69.0

표 3. 서울의 서비스업 사업체수의 변화 추이

연 도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운수 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81	227,265	3,157	22,009	52,614
1986	283,395	4,388	32,687	85,712
1991	325,104	5,921	37,775	106,514
1996	360,604	71,578	55,254	115,556
2001	350,460	87,971	65,586	127,857
81-01(%)	54.2	2686.5	198.0	143.0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80.7%로 크게 높아졌다(표 2 참조), 이러한 산업 구성비의 변화는 서울의 산업구조가 이른바 탈공업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도시경제에서 이러한 탈공업화는 물론 산업의 공백이 아니라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경제화를 의미한다. 사실 서울은 1980년대 이래 경제의 서비스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운수창고·통신업, 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즉 표 3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서비스업을 사업체수로 보면, 소비자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컴퓨터와 휴대폰 등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의 급속한 팽창으로 운수창고 및 통신사업체수가 1990년대 이후 엄청나게 늘어났고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체수도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서비스 및 기타 사회·개인서비스업의 증가도 하위직 서비스업체의 증가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서울 경제의 서비스화를 추동한 생산자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서비스업의 종사자수는 1996년 471,972명에

서 2001년 689,654명으로 46.1%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1996년 19,061개 업체에서 2001년 25,753개 업체로 35.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서비스업의 증가는 1997년말 IMF 경제위기 이후 기존 산업체들에서 실직 또는 전직 한 사람들이 이 분야로 상당히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사업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상품의 설계디자인에서 시장조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2001년 전체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수의 40.9%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광고, 법률 및 경영상담 등의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로 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연평균 25%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서울의 도시경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탈제조업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서비스경제의 급속한 팽창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하위 부문으로 보면 아직 소비자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만, 운수통신 및 금융보험, 부동산 등의 사업(생산자)서비스업종들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 경제 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빠르게 변

표 4. 서울의 사업서비스업의 변화 추이

구 분	종사자수		증감률		사업체수		증감률	
	1996	2001	증가율	연평균	1996	2001	증가율	연평균
계	471,972	689,654	46.1	7.9	19,061	25,753	35.1	6.2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41,534	122,945	196.0	24.2	1,539	4,986	224.0	26.5
연구 및 개발업	46,167	49,013	6.2	1.2	457	487	6.6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49,629	281,875	12.9	2.5	14,045	16,373	16.6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134,642	235,821	75.1	11.9	3,019	3,907	29.4	5.3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화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 고차 생산자서비스의 발달이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경제의 발달은 한편으로 유연성이 강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직종의 위험성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 정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광익·류승한, 2001).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오늘날 대도시들의 경제는 단순한 산업구조의 변화라기 보다는 생산체계나 기업체계에서 나아가서 산업클러스터 또는 산업네트워크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지역단위의 혁신체계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혁신네트워크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의 생산성이 높고 따라서 지역경제를 선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이 높은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체수는 1990년대 후반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업체들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업

체수가 괄목할 증가를 이루었다. 즉 전국 벤처기업체수는 1998년 2천여 개였으나 1년 후 1999년에는 5천개에 달할 정도였고, 다시 1년 후인 2000년에는 8천 8백개에 달했고, 2001년에는 1만개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그 이후 다시 경기가 침체하면서 벤처기업체수는 크게 줄어 8천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벤처기업의 부침 속에서 서울은 벤처기업의 창설과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서울의 벤처기업체수는 1998년 7백여개로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업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46%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업체수는 전국적 추세와 더불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42-43%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서울 집중은 서울이 가지는 경제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조건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벤처사업이 이와 같이 서울에 집중하는 것은, 서울이 벤처 캐피탈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적 부와 더불어 정치적 권력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의

표 5. 벤처기업 업체수의 변화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042	4,934	8,798	11,392	8,778	8,288
서울	719	1,858	4,068	5,345	3,802	3,503
비율	35.2	37.7	46.2	46.9	43.3	42.3

자료 : 통계청

표 6. 수도권 IT산업관련 벤처기업 현황비교 (2001년 8월)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전체
제조업	878	300	71	1,249
통신업	43	0	3	46
서비스업	2,924	8	36	2,986
계	3,845	308	107	4,260

자료 : 통계청, 2001, 벤처기업통계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도 벤처기업에 필요한 고급기술의 생산과 물질적으로 높은 삶의 질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최재현·안중천, 2001).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발달은 벤처기업들 간 그리고 관련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사회공간적으로 분업체계가 형성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벤처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분업체계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두 가지 측면, 즉 서울과 수도권 간에서 형성되는 연구기술부문과 제조업간의 분업체계, 그리고 서울 시내에 벤처기업의 국지적 집적지 내 형성된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은 오랜 산업화 과정을 거쳐 국가의 선도적인 경제지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던 수도권은 서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분업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80년대 이후 서울은 생산자서비스 중심의 탈산업화로, 경기도와 인천은 이러한 서울의 중추기능에 의존하여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노동분업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분업체계는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표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벤처기업들은 90% 정도 서울에 밀집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제조업분야의 벤처기업들의 서울 집중도는 70% 정도이다. 즉, 수도권의 정보통신산업관련 벤처기업들 가운데 모든 유형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보통신관련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경기와 인천의 비율이 높지만, 서비스업은 압도적으로 서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적 노동분업은 서울지역에 입지하고 있던 제조업들이 점차 주변지역이나 해외로 분산되고 점차 성장하고 있는 신흥 사업서비스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삼욱, 1993; 정병순, 2001).⁴⁾

서울 시내 벤처기업들의 입지도 지역 내에 균등하게 분포하기 보다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즉, 2001년 우리 나라 벤처기업체들 가운데, 약 72%는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며, 그리고 47%는 서울에 입지해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에 전국의 20% 이상이 집중해 있다. 강남지역의 벤처기업은 주로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구에 이르는 테헤란로 주변에 모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이 곳을 테헤란밸리로 부르게 되었다.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테헤란밸리는 벤처기업이 창업·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기업들이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공존공생하는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김대영, 2000). 테헤란밸리에 이와 같이 첨단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벤처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오피스빌딩 등 물리적 지원시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과 법률, 회계, 광고, 경영컨설팅 등의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기능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벤처기업인들간의 공식, 비공식 교류를 통해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사업아이디어나 암묵적 지식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남구, 2002).

또한 이러한 벤처기업들의 집중을 위하여, 제도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보통신관련육성법률」, 「기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대상에서 해당지구 내 신설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장설립에 강력한 규

체가 가해지고 있는 현행의 정책환경 하에서 각 자치단체가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부문의 공간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 법률로부터 찾고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김갑성 외, 2002; 김영수, 2003). 서울시의 경우 이미 상당한 성장단계에 도달한 IT산업클러스터의 증대되는 공간수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환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같은 새로운 집적지를 조성하고 있고 각 자치구 또한 독자적으로 혹은 중앙부처와 함께 벤처집적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정병순·신창호, 2002).

이와 같이 서울의 테헤란밸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하게 정보하부구조의 우수성, 지원서비스 기능의 발달과 더불어 공동학습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공유 등을 통해 나름대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테헤란밸리에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벤처기업의 집중적 입지 및 성장은 1980년대 개발된 이후 서울에서 핵심적 성장지역으로 강남지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의 도시 공간경제의 핵심과 그 범위는 강북 중심에서 강남 및 기타 신개발 외곽지역으로 이전, 확산되었고, 특히 1990년대 이후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은 신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실현되게 되었다(신창호·정병순, 2002).

2) 도시정치

(1) 서울 중심의 정책기조와 지방정치의 중첩

한국의 정치와 행정구조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중앙집중을 전제로 구축되어 왔다. 즉 중앙집권적 정부 통제가 관행화되어 있으며, 정부의 의사결정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방정부는 단지 이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였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인구와 산업들의 서울 집중을 초래했다. 서울은 조선시대 이후 수도로서 정치적 권력의 중심지로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의 집중 및 사회문화적 시설들의 집중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 집중과 비대화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들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과잉집중의 문제를 초래한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서울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지로서 모든 정책 기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가 복원됨에 따라, 도시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서울은 이러한 점에서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의 집중지이면서도, 또한 지방자치

표 7.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규모 (2000년)

(단위 : 10억원)

구 분	합계 (A+B)	일반+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B)	재정자립도 (%)
		소계(A)	일반	기타		
전 국	81,739	73,454	61,203	12,250	8,327	57.6
서 울	15,034	14,295	11,235	3,059	738	95.6
광역시계	17,147	14,972	11,205	3,766	2,174	76.1

자료 : 행정자치부, 2001

단체들 가운데 가장 막강한 지방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서울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의사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또한 서울의 정치권은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활동 영역이 점차 형성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1995년 4대 지방선거의 도시 실시를 계기로, 서울의 지방정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정치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김광식, 1998). 사실, 서울의 지방자치 역량이 대도시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재정수입과 자립도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즉, 서울시의 재정운영에서, 총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5.9%(약 2조 9백억원)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 1995년 62.2%(4조 3천억원), 2001년에는 60.7%(7조 9천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1990년대 들어 총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울의 재정규모는 200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계에서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광역대도시들의 재정 총계와 비교하여 87.7%에 달한다. 또한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95.6%를 달성하여, 전국 57.6%, 광역시 평균 76.1%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와 같이, 서울은 과거 중앙집권 시절에도 상당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주로 중앙정부의 권한에서 도출된 것이고, 실제 지방자치체로서 서울시의 역할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국가와 대자본 간의 경쟁유착을 통해 결정되는 각종 정책들을 단순히 집행하는데 국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더불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고자 하는 전략과 정책목표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을 연동시키는 도시정치적 과정을 활성화시키면서, 도시정부의 지배체제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도시정치학에서 언급되는 '비공식적 통치연합'의 존재가 우리의 도시정부 수준에서도 이젠 유의미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새로운 통치체제(거버넌스)의 제도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정치적 역량은 1987년 이후 민주화 운동과 1993년 새로운 문민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강화되었다고 하겠다. 사실 1980년대 후반 이후 국가 전체가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게 되었으며 또한 1990년대 전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는 군사독재정권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권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지방정부의 정치활동과 정치체계의 구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과정과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도시정부의 성격 변화와 새로운 도시통치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 개발독재 하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가 어느 정도 이완되면서 도시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사회의 다양한 영역들, 대표적인 예로 주거,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여론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도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직접적으로 정치영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도시정치 분야에서 새로운 도시화를 특징지운다. 또한 새로운 도시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15대(1명), 16대(3명), 199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방정부는 동시에 심화된 도시간의 경쟁상태에서 스스로 도시발전을 모색하는 대안적 정치체제와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이에 도시 정부와 도시정치가 어떤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보다 실천적인 담론으로 의미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담론 가운데 핵심적인 개념은 거버넌스(governance, 協治)이다. 일반적으로 통치시스템을 의미하던 거버넌스 개념은 다양한 주체간 수평적, 협력적 통치시스템을 함축하는 의미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정치체제로서 거버넌스는 경제시스템의 변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를 통해 그 의의와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정치 체제로서(로컬) 거버넌스의 도입은 서울시 또는 그 하위단위인 자치구나 또는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인접한 시,군들과의 관계에서 확인될 수 있다. 예로, 한 연구에 의하면, 지방의 군단위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하위 행정단인 서초구의 경우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의사소통 채널이 협력적 지역 사회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박희봉·김명환, 2000). 이러한 거버넌스체제가 활발하게 형성되는 분야는 환경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서울시의 경우, 지속가능성이라는 다차원적 발전가치를 전제로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실제 전개된 사업추진을 둘러싼 협력과 조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 연구전문가 그리고 기업인, 언론, 교육, 법조인, 시의원,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었으며, 기수를 거듭하면서 ‘녹색’ 거버넌스가 점차 제도화되게 되었다(표 8 참조)(정규호, 2002; 조명래, 2003).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의 제도화는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정당화시켜주는 데는 기여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를 배경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방정부들 간 치열한 경쟁은 이를 명분으로 한 지방정부의 공공개발과정에서 민간자본의 동원이나 기업가적 행정운영을 추구하도록 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더불어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각종 수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거나, 보다

표 8. 기수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구성 변화

구 분	합계	시민사회단체					연구전문가					기업인	언론, 교육, 법조인	시의원	공무원
		소계	환경 단체	사회 단체	종교 단체	기타	소계	교수	정부 연구	기업 연구	기타				
제 1기	100	39	12	13	2	12	18	11	1	2	4	18	18	7	-
제 2기	67	34	17	13	1	3	12	6	3	2	1	10	6	5	-
제 3기	91	29	14	13	2	-	31	17	5	5	4	13	5	5	8

주 : 제 1기: 1995.11-1008.2; 제 2기: 1998.2-200.3; 제 3기: 2000.3-2002.2
 자료 : 정규호, 2002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 이러한 지역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역 및 영등포역의 민자역사 개발을 들 수 있다. 공공적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업들은 협소한 역사공간을 확대하고 보다 쾌적하고 근대화된 역사 건축물을 마련할 수 있게 했지만, 역사내 과도한 상업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익성 지상주의와 단순화된 비용, 편의 분석으로 사업성을 평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실제 편익은 무시한 사업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최지훈, 1999). 서울시의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들은 다른 도시 및 지역들에 주요한 선례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문화

(1) 사회계층 분화와 주거유형의 변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근대 도시와 포스트모던 도시 간을 구분지우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계층 구성이다. 과거의 모던 도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산업노동자들의 증가에 따라 신중간층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계층이 분화해 나가는 양상을 보였으며, 집단의 내적 동

질성은 상대적으로 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포스트모던 도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의 붕괴와 중간층의 해체가 촉진되면서 상위 고기능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증가한 반면, 하위 단순직 노동자들은 실직 또는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도시의 계층구조에서 양극화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계층구조의 변화는 취업 업종과 종사상의 지위, 그리고 소득수준 등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나, 전체의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사회계층적 특성과 불평등은 흔히 주거의 유형으로 확인될 수 있다(윤일성, 2002).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가구에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1990년 38.0%였으며, 1995년에는 39.8%로 다소 늘어났고, 2000년에는 다시 40.9%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보유율의 증가는 주택보급율의 증가, 즉 1990년 50.8%, 1995년 56.9%, 2000년 62.1%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주택의 자가소유율과 주택보급율 간의 이러한 차이는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들이 1가구 2주택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실제 무주택가구의 주거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9 참조).

주거와 관련된 또 다른 사항은 아파트 주거유형의 급속한 확산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주택

표 9. 서울시의 점유형태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 현황

(단위 : 천가구)

연도	가구수 합 계	주택수 합 계	점유형태						거처의 종류					
			자가	전세	보증부 월 세	무보증 월 세	사글세	무상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 택	비거주 용주택	주택이 외거처
1990	2815	1431	1071	1135	298	254	57	1850	531	255	59	101	19	
1995	2966	1688	1179	1300	402	20	23	42	1694	729	258	143	127	14
2000	3086	1917	1263	1271	445	36	21	-	1551	979	232	180	123	21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해당년도

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1%에서 1995년 43.2%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전체 주택에서 절반 이상(즉 51.1%)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거주 가구의 비중은 1990년 18.9%에서 1995년 24.6%로, 2000년에는 31.7%로 증가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공급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한 아파트 분양은 주거기능 이외에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인식되면서 서울의 거주지역은 새로운 사회적 변동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즉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사회적 배경이나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동질집단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게 되어 아파트라는 주택소유를 통하여 사회적 계층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아파트소유를 통한 주택계층의 형성은 서울의 거주지 분화를 유발하였으며 사회적 계층화를 촉진하였다(한주연, 2002).

최근에 나타난 주민의 주택 선호 경향으로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지은 빌라와 전원주택을 찾아 이주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즉, 포스트모던 도시는 고도의 분절화된 생활양식으로 분화되고, 생산 보다는 소비 유형에 의한 집단 구분이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점은 주거의 소비에서도 반영되게 된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5개 신도시로의 대거 이주와 함께 또 다른 교외

화 현상을 촉진하리라 본다. 따라서 아파트 중심의 거주특성은 앞으로 또 다른 상향적인 사회적 여과현상으로 인해 변화를 겪을 것이며 공간적으로 새로운 분화가 예상된다.

포스트모던 도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기들의 보급 급증이다. 서울은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계 어느 도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보화된 도시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전화가입자수와 가구수가 동일 수준에 이르렀으며, 1990년대 들어 무선호출 등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곧이어 1996년 이후 이동전화의 사용이 도시생활에 보편화되었다. 또한 컴퓨터의 보급 확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입도 증가하고 있다.⁵⁾

(2) 소비행태의 변화와 장소의 소비

포스트모던 도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다양성, 차별성, 분절 등이 제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친 후 다양한 사회분부와 계층에서 실질적인 생활의 향상과 보다 인간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경제

표 10. 서울시의 소비문화시설 현황

연도	구분	대형상업시설			공공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수영장	극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대학
1991	전국	82(1,035)	40(407)	43(159)	113(580)	97(4,104)	81(336)	949	20	95	225	126
	서울	27(457)	13(103)	5(16)	7(117)	4(292)	16(42)	279	7	26	27	34
2000	전국	103(5,220)	47(1,514)	139(3,618)	29(1,078)	124(4,855)	94(522)	711	52	183	373	202
	서울	28(2,274)	13(585)	21(781)	40(253)	4(216)	29(247)	194	17	63	37	43

주 : 상업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은 연면적(천m²)임
 자료 : 행정자치부(내무부), 한국도시연감, 해당년도.

성장과 같이 진행되는 공업화, 도시화, 인구팽창 및 기술의 진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역행적 현상, 즉 인간소외와 심리적 불안,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문제의 대두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추진해야 할 발전의 목표가 단순한 부의 몰광적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보건, 교육, 사회복지, 등과 같은 생활의 질의 향상이라는 보다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에 당면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은 특히 도시의 소비문화에서 드러난다. 현대의 도시문화는 매우 소비지향적이며, 시민들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는 지위, 아이덴티티, 구별짓기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과거에도 소비는 이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 소비패턴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배타성, 스타일, 독특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핵심적인 도시경관이 독특한 소비를 따라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소비는 독특해졌으며, 그리고 독특한 도시환경과 그 입지가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서울은 경제·정치적 권력의 집중지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소비의 집중지로서, 시민들의 사회문화적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예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할인매점 등의 대형상업시설이나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의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대학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의 교육문화시설들도 서울에 집중해 있으며(표 10 참조), 그 집중의 질적 수준으로 고려한다면 집중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단위 생활스포츠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문화예술시설 공간수가 확장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구당 여가 활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가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연령과 교육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물품구입, 이혼·재혼율의 증가와 같은 의식 및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등장으로 세대간 단절이 심화되고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로 연령·직업·취미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여가활동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참여하며 즐기는 생활체육 수요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학교·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생활·사회체육 중심으로 변화와 함께 여성의 스포츠·레저 참여 확대와 전 연령층에 걸친 스포츠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를 통한 구분짓기 또는 정체성의 확보 경향은 물질적 상품이나 특정한 상징적 아이디어의 소비뿐만 아니라, 장소의 소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서울에서는 1990년대 들어 다양한 도시축제와 과거 경관의 현대 도시경관으로의 통합, 문화의 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장소마케팅, 나아가 도시마케팅은 장식적이며 포스트모던한 디자인을 통해서, 쇼핑몰의 테마화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 건물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대규모 국제회의 또는 스포츠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로, 1988년 올림픽경기의 개최 이후 서울은 사회문화적, 공간(또는 장소)적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이학래·임태성, 1994). 도시마케팅은 외국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의 대폭 증가를 예상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서울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나 일제시대와 개항

연대를 거치면서 훼손·유실이 심각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역사·문화유산들을 보존·정비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시설공간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완화 대책이 필요하며,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이혜은, 1997). 모던 도시는 생산 위주의 도시경관을 갖고 있지만, 포스트모던 도시의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시설이나 기능의 배열 공간이 아니라 전체로서 문화적 코드이자 스펙터클이며 이미지이다. 소비와 문화적 실천이 중요해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서울의 문화적 경관은 서울시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장소의 정치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4) 환경

(1) 환경오염의 통제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증가해 온 서울에서, 환경오염은 1980년대 후반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서울 시내에 입지했던 일부 공업단지들과 대규모 주거단지 그리고 자동차의 우선적 보급 등으로 인해, 예로 서울의 아황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도는 0.056ppm에 달했다. 또한 서울에 집중했던 인구 및 산업의 외곽 분산하여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환경오염도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광역적인 대도시 환경문제로 광역화되게 되었다. 환경오염은 집적효과로 인해

계속 심각해지는 반면 이러한 오염물질을 수용하는 수도권 환경의 자정능력은 오히려 대규모 개발로 녹지가 파괴되고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공간구조로 인하여 점차 저하되게 되었다(유환중, 1998).

그러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환경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1980년대 심각했던 대기 및 수질오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 탈황시설의 설치와 탈황유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대기오염은 크게 감소하였다(표 11). 그러나 그 외 대기오염물질들은 1990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다소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폐기물의 경우 전체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폐기물 발생량의 특징을 보면 전체 폐기물량에서 사업장 폐기물(1996년 7.6%, 2000년 5.7%, 2001년 4.9%)과 생활폐기물(1996년 54.8%, 2000년 35.4%, 2001년 28.0%)은 점차 낮아지는데 비해 건설폐기물은 1996년 37.6%, 2000년 58.9%, 2001년 67.1%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12). 생활폐기물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소비수준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분리수거의 시행 등

표 11. 서울의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단위 : ppm)

구 분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아황산가스	0.056	0.051	0.017	0.006	0.005	0.005
오존(O ₃)	-	0.009	0.013	0.017	0.015	0.014
이산화질소	-	0.030	0.032	0.035	0.037	0.036
미세먼지	-	-	78	65	71	76

자료 : 통계청, 환경통계연보 해당년도

표 12. 폐기물발생량의 추이

(단위 : 톤/일)

연도	전 국							서 울						
	계	건 설 폐기물	비율	사업장 폐기물	비율	생 활 폐기물	비율	계	건 설 폐기물	비율	사업장 폐기물	비율	생 활 폐기물	비율
1996	175,334	28,425	16.2	96,984	55.3	49,925	28.5	24,959	9,372	37.6	1,902	7.6	13,685	54.8
1997	189,200	47,717	25.2	93,528	49.5	47,895	25.3	24,653	10,061	40.8	1,930	7.8	12,662	51.4
1998	184,989	47,693	25.8	92,713	50.1	44,583	24.1	22,003	9,117	41.5	2,121	9.6	10,765	48.9
1999	211,728	62,221	29.4	103,895	49.1	45,614	21.5	23,950	11,231	46.9	1,747	7.3	10,972	45.8
2000	226,668	78,777	34.7	101,453	44.8	46,438	20.5	32,291	19,025	58.9	1,828	5.7	11,438	35.4
2001	252,927	108,520	42.9	95,908	37.9	48,499	19.2	42,737	28,663	67.1	2,106	4.9	11,968	28.0

자료 : 통계청, 환경통계연보, 해당년도

으로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촉진되면서 재활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건설폐기물의 급속한 증가는 서울의 각종 건축물들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생태도시의 건설 및 지속 가능한 도시화

산업사회의 모던 도시는 기본적으로 반환경적이었다면, 포스트모던 도시는 원칙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생태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의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한편, 대형 환경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의 위기의식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증대는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즉 생태도시를 추구하게 되었다. 생태도시란 저에너지 건물 및 시설의 건설, 자연에너지의 사용, 절대녹지공간의 최대한 확보, 환경 부하량이 최소화되는 생활기구나 제품의 사용 확대 등에 의해 생태적 순환구조가 구비된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는 자연재해나 인공재해로부터의 위협이 최소화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1990년대 들어 서울은 생태 및 녹색 도시 혹은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

중화, 1995).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은 우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남산의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노력하는 등 경관의 중요성도 점차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각 자치단위별로 소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과 같은 소규모의 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라든가 약수터 주변의 동네 체육시설, 구민체육센터와 같은 시설들을 확충하게 되었다(표 13).

특히 서울 정도 600주년인 1994년을 전후하여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남산 제모습가꾸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며, 도시환경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공원기능이 부각되면서 생태공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그전에 비해 공원과 녹지가 양도 늘어나게 되었다. 예로, 서울시의 공원현황을 보면 1995년 1394개소(150842천m²)에서 2000년 1437개소(155852천m²), 2001년 1559개소(157585천m²)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의 녹지가 확보될 수 있는 공원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여의도 생태공원의 조성과의 같이 이미 황폐화된 도시 환

표 1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정책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삶의 질 달성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조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기반 구축 . 자원절약적 자원순환형 도시 지향 . 지구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참여
추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의 원칙 .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의 원칙 .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 .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 환경관리 목표 확립 . 시민·기업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으로의 변화 .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로 전환 . 체계적·종합적 환경관리체제로 변화

자료 : 서울특별시

경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행정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5.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

1) 공간구조의 변화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도심기능은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도심에는 중추관리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집중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주거기능은 점차 다른 기능으로 대체되는 이른바 도심공동화 현상이 초래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 중구의 인구는 1965년 서울시 총인구 대비 11.5%에서 1990년에는 4.2%로 감소하였고, 절대인구도 1970년대 후반 이후 점점 감소하고 있다(전명진,

1996; 남기범, 1997; 이상대, 1999). 1990년대 들어서도 서울은 도심지역의 인구공동화 현상(그리고 거주지 교외화 현상)과 더불어 고용의 다중심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변병설, 2001; 이명훈·전병혜, 2002).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 교통이 지하철과 승용차시대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서울은 내부공간적으로 두 가지 분화현상이 탁월하게 나타나, 새로운 도시화의 공간적 특색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는 기존 단핵 중심도시에서 3개의 고용의 중심지가 형성되어 유기적으로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거주지역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분화하여 계층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점이다(전명진, 1997).

고용의 다중심지화의 출현에는 대도시의 국제화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금융, 보험, 부동산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와 관련된 생산자 서비스의 빠른 성장과 그 분포와 관계가 깊다(김수령, 1992). 1995년도 서비스의 입지계수 분포

도로서 강북지역보다 강남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강남지역이 도시기능의 국제화과정에 더욱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고용중심지의 출현은 시정부가 도시 내에서 과밀한 기능을 분산시키려는 노력과도 일치한다. 즉 여의도 지역에 국회의사당과 금융·증권·언론, 기타 업무기능의 유치 및 이전, 강남지역에 법원과 국립도서관의 이전과 무역회관의 건립, 그리고 올림픽 스포츠콤플렉스의 건설, 고급호텔의 건설 등은 서울의 중심기능 지역이 다중심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분화는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 및 탈공업화와 서비스경제화에 의해 유지·발전되는 도시들에서 이른바 '이중도시'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특히 IMF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임석희·이용우, 2002). 서울의 탈공업화로 1980년대 많은 공장들이 이전한 자리는 대부분 아파트주거단지로 재개발되었다. 1960년대 공업화의 상징으로 개발된 구로공단은 최근에는 전용고속통신망을 갖춘 디지털공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구로공단은 130여 개의 벤처기업과 패션·디자인·고도기술산업체 400여 개가 자리를 잡고 있어 영등포와 함께 대표적인 탈공업화 현장이 되었다(유환중, 2001).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제조업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존 공업지역에서의 탈공업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도심 및 강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창업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은 첨단기술산업과 벤처기업들의 집적지이며 또한 이른바 강남학군으로 대변되는 높은 수준의 교육문화 생활을 향유하는

차별적 지역을 상징하게 되었다.

1990년대 서울시의 공간구조 변화에서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서울시 외곽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들의 건설과 관련된 교외화 현상이다(권용우, 2001). 교외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탈공업화와 관련을 가지며, 특히 서울의 탈공업화와 공장의 이전은 서울근교와 수도권 전역에 불법공장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계기로,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서울 근교지역인 분당과 일산 등에 대규모 신도시가 계획되어, 1990년대 초반에 대부분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되게 되었다. 이러한 신도시들은 서울시의 과밀인구를 분산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토지 및 주택의 부족과 교육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신도시들의 건설은 부분적으로 서울 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가져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졸속하게 계획, 건설된 신도시들이 자족적 기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서울 도심과 신도시들 간 통행량을 확대시키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외곽으로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도시공간 정책의 변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도시공간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향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1991년 30여 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려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가 구성되는 등 오랜 중앙집권의 시대가 지나고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도시공간 정책을 직접 입안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정책은 단순히 서울 그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정계획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997년 1월에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공포되었다.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1991년 구의회의 구성과 자치구로서 구가 수립한 자치구의 개발계획을 수렴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서울을 포함한 서울과 연결한 시군을 통합한 광역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199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신시가지 개발과 간선도로 및 지하철 노선의 확충을 통한 공간확산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2011년 기본계획은 시민을 위한 생활환경정비, 교통관리체계의 구축과 대중교통체계 위주의 도시구축,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시민안전과 위기관리체계의 구축 및 통일과 지구촌 시대를 대비한 공간구조의 개편 등을 기조로 삼고 있다.

1991년을 정점으로 서울의 상주인구는 절대적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업부문의 이전분산과 경제기반의 공동화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했으며 첨단 내지 벤처산업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외연적 확산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내연적 또는 내파적 개발논리가 필요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기존 저밀도 단독주거지역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증충고밀화 현상이 가속화 되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의 요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도시공간 정책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 또는 구조적 배경 등이 작동하였다. 우선 들 수 있는 점으로, 1990

년대에는 세계화와 정보화를 향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촉진되고, 지역 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도시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국제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즉 무역거래, 자금관리, 외환리스크 관리 등 금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동북아 경제권 선점을 위한 아시아 도시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이 경제발전을 선도함에 따라 이러한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이 선호되었다.

정보화는 이러한 도시개발계획을 더욱 촉진시켰다(이자원, 2000).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기술주기가 단축되고 속도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으며, IT·문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달, 고부가가치 도시형 산업의 중요성 증가, 재래산업인 제조업과 첨단벤처기업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애니메이션, 패션, 소프트웨어, 캐릭터, 게임,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고 이들을 입지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테헤란밸리가 창출되어,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도시내 신산업공간의 창출과 더불어, 도시내 다양한 산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모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이어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공간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로서, 문화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들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여가공간을 늘리고 문화활동의 중심근거지로 육성하는 한편 민간예술활동 지원 확대, 도시성장과정에서 훼손되고 잊혀

진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복원·활용하여 서울만의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이미지가 포스트모던 도시에서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도시경관의 창출은 도시에 긍정적 이미지를 표현할 어떤 필요성을 반영하고 장소관측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개발이 추진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즉 도시계획에서 도시마케팅 전략은 부수적이기보다는 도시개발을 구체화하는 데 점점 더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요소로서, 생태환경적 요소를 들 수 있다. 대도시화로 인한 도시환경오염의 심화와 이로 인한 크고 작은 환경사건들의 발생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관련하여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특히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도입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이를 원용하여 활발하게 추진된 '지방의제 21' 제정과 시행이 도시계획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서 나아가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환경정의'의 개념이 도시정책에 도입되어 강조되게 되었다.

6. 서울 신도시화의 한계와 전망

서울의 신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각 부문별 한계 또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분야에서의 문제점으로, 서울의 경제발전은 한국의 경제성장 전반을 주도하였으나 수도권 과밀과 다양한 도시문제들을 유발하면서 탈공업화와 서비스경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대도

시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생산지원적 3차산업의 발전은 동아시아의 다른 대도시들, 예로 동경이나 홍콩에 비해 미흡한 편이며, 앞으로 심지어 상하이 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금융, 보험, 법률 등 생산지원적인 3차 산업 육성과 기술집약형 도시형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치분야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수요자 위주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행정수요의 증가에 비해 서울의 자치역량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새로운 도시정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은 아직 모든 분야들에 확대되지 않고 있다. 정보화 시대로의 이행에 따라,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의 참여욕구가 다양화 됨은 물론 NGO의 역할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서울의 자치권한은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이양 또는 위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시정참여와 민간부문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늘여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보면 대도시 경제의 전반적 이중구조화 및 이와 맞물려 사회계층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양극화된 사회계층들은 동일한 대도시에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상이한 소비양식과 문화양식을 지니게 된다. 서울에는 전국적으로 사회문화적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생활권내의 중소규모 문화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함은 물론 민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개인의 표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또한 계층·집단별로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집단체에

다른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범죄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분야의 변화는 모던도시의 자원개발중심에서 비롯된 환경오염의 심화가 서울도 예외는 아니어서 양적 성장 및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생산체계 및 산업구조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이미 훼손 또는 황폐화된 지역에 대하여, 예로 남산복원사업, 소공원조성, 주제공원 등장,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복원 및 녹지공간의 조성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적인 변화는 90년대 들어 서울의 인구가 주변의 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상주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신시가지 개발에 치중하여 외형적 발전은 이루었으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남지역과 여타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의 증가는 답보상태이고 광역 대중 교통체계의 미비로 교통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비하여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기반시설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울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신도시화에 내재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원용한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제시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지 않는 도시개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자원을 파괴하지 않고 자기 순환적 과정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도시발전을 의

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차 참여해지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의 초점은 어떻게 기존의 도시형태가 환경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줄이도록 관리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미래의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라는 논제에 있다.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자원의 주요 소비지이며, 동시에 도시는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주요 생산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주요 인구 입지이며, 경제 성장지로서, 현재 대부분의 환경 위기는 직간접적으로 도시에 내재된 속성에 기인한다. 지속가능한 도시화란 이러한 도시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광의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화란 단순히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 내외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이란 물리적인 환경친화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지속가능성, 나아가 도시화를 추동하는 메커니즘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도시화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하부시설로서 도로 건설과 인공적인 건물 조성 등의 건조환경 구축과 같은 도시개발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해야 한다(최병두, 2003).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해선 우선 경제적으로 환경친화적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즉 국제금융, 정보통신기술, 영화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총생산과 가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공단지역을 오피스 빌딩과 테크노 빌딩으로 재건축하여 중소기업과 도시형 신산업의 입지수요가 충족되고 투자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투자가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도시의 모든 주체들(도시정

부, 기업, 시민)의 협동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좋은 통치'를 이루어나가야 하며, 조직·재정 등에 대한 자치권이 확대되고 행정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에서 공급되더라도 주택, 교육, 의료 보건 등 필수적인 집합적 소비재는 공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행정의 진전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정참여 및 민원처리가 활성화되어 투명한 행정의 구현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도시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양식, 생활양식, 도시빈곤과 불평등의 해소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고령화사회에 대한 종합대응으로 노인 등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수요를 공공부분에서 담당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신속성이 향상되어 대중교통중심의 도시 생활문화가 정착되며(노시학, 2002), 지역마다 소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민간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지 도시마케팅을 위한 문화 복원이 아니라, 600년 수도로서 서울이 갖고 있는 독창적 역사문화와 첨단문화가 조화된 문화경관이 조성될 것이다(이혜은, 1997).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기질과 수질이 개선되며, 녹지면적이 증대되고 생태계가 회복되며, 발생된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맑고 깨끗한 환경친화적 녹색도시가 구현될 것이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 위기관리, 구조시스템이 완비되고 시민의 자율적인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이며, 한강교량, 도시고속도로, 지하철시설물 등 도시시설물이 과학적으로 관리되어 인재 없는 안전한 서울이

실현될 것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청계천 복원과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직주근접형 도심재개발로 강북지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서울 동북, 서남부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과 복지문화시설이 균등 배치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로 변모되고 자치구별 재정여건, 행정서비스의 질, 경제활동 등의 격차는 크게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백년이 넘는 고도에서 지난 백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서울은 지난 10여년 동안 새로운 도시화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발전적 경향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미래의 서울은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로, 공원과 녹지는 개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묘약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표이기도 하다. 종전에는 경제적 가치만 중시하는 재건축, 재개발이었지만 미래에는 문화적,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가장 높게 내세우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공원과 녹지를 되찾을 수 있고, 건강하게 보살필 수 있으며, 이러한 실천을 통해 미래의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있을 것이다.

7.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서울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계가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로 전환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도시화 과정은 경험적으로 그리

고 특히 한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조명래, 1996). 게다가 한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한 도시의 총체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공간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신도시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도시경제는 1990년 이후 계속하여 서비스화되어 왔고, 이러한 서비스화는 대개 고차 생산자서비스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서울은 높은 재정자립도 등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정치가 펼쳐질 수 있는 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시의 지역정책은 한편으로 민자개발 등을 통한 기업주의적 성향을 뚜렷이 보여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단체의 증가와 시민운동의 발달은 새로운 도시거버넌스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시민들은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구가 증대되었으며, 이것은 여가활동 및 구매행태의 변화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정체성 확인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관련하여 서울이라는 도시환경 혹은 장소가 문화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생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소비의 공간이며 문화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행태의 차이가 보여주듯 시민들의 사회적 계층구조는 양극화·분절화되고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 서울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끝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

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능적 목적보다는 가시적으로는 생태적,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위의 분석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즉 모던 도시에서 포스트모던 도시로의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규범적 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포스트모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은 그 도시를 구성하는 부문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도시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상이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새로운 도시화 과정으로서의 포스트모던 도시화는 하나의 단순하고 보편적인 궤도가 아닌 지역적으로 매개된 일련의 복잡한 결과로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도시 또는 도시화는 하나의 규범적 모델이지만 또한 동시에 장소 특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주

- 1) 이 글에서는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위상 발전에 관한 논의는 제외한다. 이에 관하여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1995; 김인, 1996 등 참조.
- 2) 이러한 도시의 지배체제는 주로 단체장, 의원, 지방정부 관료, 지역상공인, 언론, 시민단체들로 구성된다. 이는 비슷한 계층적 정치적 지향성을 공유한 비공식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집단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등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서 각종의

-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기능한다(조명래, 1999).
- 3) 서울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해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등 참조. 또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서울에 관한 포괄적 연구로,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1993) 참조.
- 4)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권의 노동분업은 전국적 규모로 보면 중추기능의 서울 집중과 더불어 거의 모든 업종의 제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여 지역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켰다(최지훈, 2000).
- 5) 이러한 정보화는 도시공간의 새로운 분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자원, 2000).

참 고 문 헌

- 강남구, 2002, 테헤란밸리의 벤처 생태계 분석 및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구.
- 강현수, 2003, "포스트포드주의적 경제발전과 새로운 도시화," 2003년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구동희·박영민 역, 1995,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asil Blackwell).
- 권용우, 2001,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설정," 대한 국토도시·도시계획학회지 36(7), pp.197-219.
- 김 인, 1996, "세계도시로서 수도 서울의 발전전망에 관한 지정학적 연구-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을 계기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1(2), pp.7-19.
- 김갑성의 4인, 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형태와 정책방향," 지역연구 18(1), pp.25-47.
- 김광식, 1998, "지역정치 공간으로서의 서울," 정치비평 4, pp.36-58.
- 김광익·류승환, 2001, 대도시 산업지역 구조변화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대영, 2000, "서울시 벤처기업의 분포특성과 입지요인," 지리학연구 34(3), pp.179-191.
- 김수령, 1992, "서울의 다핵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지가 및 서비스·업무기능의 공간분석을 통하여," 지리교육논집 27, pp.31-53.
- 김영수, 2003,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발전동향과 정책시사점, 서울: 산업연구원.
- 김재철, 1999, "기업가적 지방정치와 지역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pp.29-45.
- 남기범, 1997, 서울도심부 변천과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노시학, 2002,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대안," 지리학연구 36(4), pp.327-339.
- 박종화, 1995, 서울시 생태도시계획 대안의 수립, 녹색서울 2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발간.
- 박희봉·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pp.175-196.
- 변병설, 2001, "도시생태학에 의한 서울시 중심부 토지이용변화 연구," 지리학연구 35(1), pp.75-90.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 신창호·정병순, 2002, "서울시 정보통신(ICT) 산업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 지역연구 18(1), pp.1-23.
- 유환종 외, 1999, 현대 도시의 변화와 정책, 서울: 푸른길.
- 유환종, 1998, "공간구조변화에 따른 수도권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2(2), pp.105-118.
- 유환종, 2001, "서울의 탈공업화 현상과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5(2), pp.115-126.
- 윤일성, 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도서출판 한울.
- 이명훈·전병혜, 2002, "서울 도심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37(2), pp.289-298.
- 이무웅 외 옮김,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도서출판 시각과 언어.
- 이상대, 1999, "도심 주거기능의 쇠퇴현상과 대응방안," 공간과 사회 11.
- 이자원, 2000, "정보화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지리학연구 34(4), pp.245-258.

- 이학래·임태성, 1994, “서울 올림피아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미친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3(2), pp.2214-2230.
- 이혜은, 1997, “600년 서울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전통 경관과 현대경관의 혼재,” 지리학연구 31, pp.59-70.
- 임석희·이용우, 2002, “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특성: 서울의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pp.270-279.
- 전명진, 1996, “서울시 도심 및 부도심의 성장과 쇠퇴: 1981-1991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1(2), pp.33-45.
- 전명진, 1997, “서울 도시권 도시공간구조변화의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2(6), pp.225-238.
- 정규호, 2002,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거버넌스 체제에서 합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병순, 2001, “수도권 산업혁신체제의 지역거버넌스,” 한국공간환경 2(2), pp.89-99.
- 정병순·신창호, 2002, “수도권 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역거버넌스,” 지역연구 18(2), pp.29-53.
- 조명래, 1995, “포스트모던 도시론,”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새로운 공간환경론의 모색, 한울.
- 조명래, 1996, “전환기 대도시 발전의 딜레마와 전망 - 서울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성찰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 pp.15-45.
- 조명래, 1999, “신도시정치의 문제설정과 쟁점,” 공간과 사회 11, pp.21-61.
- 조명래, 2003, “녹색거버넌스 기구로서 녹색서울시민 위원회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3), pp.1-24.
- 최병두,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국 환경문제의 재인식, 한울.
- 최병두, 2002a,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 최병두, 2002b, “신도시주의 또는 새로운 도시화,” 공간과 사회 17, pp.215-239.
- 최병두, 2003,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시화,” 2003년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재현, 1998, “세계화 시대의 도시지리 연구를 위한 글로벌 패러다임(global paradigm)의 쟁점과 연구동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 pp.31-46.
- 최재현·안종천, 2001, “벤처 캐피탈 투자활동의 공간적 특성 분석,” 이학논집, (건국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6, pp.59-67.
- 최지훈, 1999, “민자역사 개발이 지닌 한계와 그 정책적 대안,” 공간과 사회 11, pp.105-134.
- 최지훈, 2000,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2), pp.81-96.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1993, 서울연구, 한울 아카데미.
-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1995, 서울, GLOBAL CITY 세계도시를 앞서가는 제안들.
- 한주연, 2002, “도시공간구조의 양극화 현상에 관한 연구: 주택가격 변화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5(1), pp.65-81.

The New Urbanization Process and Changing Spatial Structure of Seoul

Kyung-Ja Lee* · In-Ock Hong** · Byung-Doo Choi***

** Lecturer, Daegu University*

*** Research Fellow,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inock@chollian.net)*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Abstract : This study is to consider economic, political,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new urbanization process and its spatial structures and urban policy of Seoul in the 1990s. Some experimental findings which have been identified throughout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Seoul, the largest city in S.Korea has experienced a restructuring process of economy,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development of producer services as well as knowledge-based or high tech industries. Secondly, the autonomy of Seoul has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self-government, with relatively higher self-management of local finance than other cities, strengthening the tendency of entrepreneurialism, empowering civil movements, and increas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Thirdly, in the socio-cultural aspect, the material wants to gain a certain identity through consumption, using urban environments culturally, varying consuming attitudes and ways of leisure times in relation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Fourthly, in the environmental aspect, Seoul has tri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erms of increasing wants on the quality of life, and to develop a pro-environmental eco-city with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constructing green space and eco-park. Finally, in the spatial dimension, Seoul has shown a structuration of multi-centers, with highly spectacular urban landscapes and seemingly authentic urban planning. These results make us confirm that Seoul has been in the process of new urbanization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one.

Key Words : New urbanization, Knowledge-bases industry, Service economy, Polarization of class structure, Structuration of multi-centers, Eco-city.